

광주문화재단 조직 재정비... 자율성 보장해야

조직 내부 갈등·부적절한 인사... 2년만에 최대 위기

정체성 사라진 '문화공룡'... 市, 지나친 간섭 없어야

광주문화재단이 조직 내부 갈등과 부적절한 인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출범 2년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문화계 안팎에서는 재단의 위기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다. 출범 당시의 취지와는 다르게 방만한 사업과 함께 광주시의 지나친 간섭과 무책임 등으로 자율성을 잃으면서 재단의 문제는 일차감치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사표가 수리된 사무처장 자리를 장기공석으로 둘 수 없다고 판단, 조만간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 후임자를 뽑을 계획이다. 하지만 지급처럼 시의 입김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신입 사무처장이 선임되더라도 이같은 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게 문화계의 시각이다.

◇정체성 상실·시의 간섭

광주문화재단은 2011년 1월 출범 당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게 문화계 전반의 지적이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공연예술제작자를 통합하면서 출범한 재단은 공연과 전시 뿐만 아니라 축제, 관광업무까지 흡수하면서 조직이 비대해지며 '문화공룡'이라는 수식어까지 뒤따랐다.

사업 확장으로 재단의 정체성은 사라졌다. 문화수도 광주의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재단은 '이벤트성 행사'에만 주력했다. 재단 자체 사업으로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좋으나 단일 콘서트 등 재단측에서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될 행사까지 중구난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광주시의 지나친 간섭은 재단의 정체성을 흔들었다. 광주시는 각종 사업을 재단에 넘기면서 실적만을 강요하거나 사업에 일일이 간섭하며 자율성을 침해했다. 또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무조건 책임을 재단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재단의 브랜드공연 '님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시 간부의 일방적인 평가로 느닷없이 브랜드공연협회를 만든 게 대표적인 사례다.

조직 내부의 갈등 역시 재단을 흔들 요인이었다. 공공연하게 파벌이 언급되고 각종 인사 문제가 개입되면서 문제가 커졌고 사무처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지역 문화계의 여론도 급속도로 나빠졌다.

◇공임없는 인사 문제

재단은 출범 첫해인 2011년 11월 광주시의 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인사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당시 한 의원은 "문화재단 직원 채용과정에도 부적절한 의혹이 있는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로부터 해임요구된 직원에 대해 재단이 정지 2개월의 가벼운 처벌을 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재단은 2011년 1월부터 1년간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시험 등을 생략하는 등 인사규정을 어긴 채 기간제 근로자 8명, 무기계약 근로자 5명 등 13명을 비공개로 채용했다.



광주문화재단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조직 정비와 함께 광주시의 지나친 간섭이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광주문화재단의 오 광주페스티벌 공연. <광주일보 자료사진>

또 재단 사무처장은 2011년 8월께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 업무를 중단시키고 채용 부탁을 받은 A씨를 채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 관련 인사 규정을 어긴 채 총 6명을 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직 재정비·설립취지 찾아야

광주문화재단이 이번 사태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직을 재정비하고 장기적인 문화정책 수립과 지역문화 견인이라는 설립 취지를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출연기관인 광주시와의 관계 재정립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다. 재단의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시가 재단 운영에 완전히 손을 떼기 어렵지만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정확히 묻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임기가 정해진 대표이사과 달리 조례상 임기 제한이 없는 사무처장의 임기를 정하고, 대표이사와 사무처장의 권한을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문화재단의 사업·조직 운용·인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이번 사태는 인사전환으로 출발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과의 관계에 있다"며 "광주시는 출연기관으로서 재단의 예산 운용과 집행은 엄격히 관리하되, 사업은 재단이 지역문화계와 협업·소통해 창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독자성을 철저히 확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한희원 작 '장성 이발소의 겨울'

신세계갤러리 시민과 호흡

내달 9일까지 작가 8명 참여 '소설적 풍경'전

예술콘서트·아트클래스 등 다양한 이벤트도

광주 신세계갤러리가 신춘기획전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갤러리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전시와 관련해 어린이 미술수업과 예술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 신세계갤러리는 봄을 맞아 다음달 9일까지 신춘기획 '소설적 풍경'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광주 출신의 한희원, 안희정, 양나희씨와 서울·경기 지역의 권인경, 김민주, 김운재, 남경민, 윤지원씨 등 모두 8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참여 작가들은 특정장소와 사물, 공간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는 작품 35점을 선보인다.

이들은 일상의 시각적, 언어적 경계에 있는 풍경을 특유의 은유와 환유의 감성을 오가며 다채로운 이야기로 풀어냈다. 때문에 작가에 의해 재해석되고 재구성된 풍경들은 소설을 읽는 듯한 재미를 더한다.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풍경이 기억을 스치기도 하고, 점점 잊히고 있

는 장면과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풍경이 가슴 속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봄 풍경만큼이나 따뜻한 전시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돼 있다.

전시 참여 작가인 한희원씨가 음악가 한보리, 시인 나희덕, 연극인 윤희철씨와 함께 27~28일 오후 2시 갤러리에서 미술, 음악, 연극, 문학이 어우러지는 예술 콘서트 '오후의 예술 산책'을 진행한다. 갤러리 안에서 흐르는 피아노 선율과 한 편의 시가 관객들에게 봄을 선물할 예정이다.

오는 30일과 다음달 6일 오전 11시에는 갤러리에서 6세 이상 어린이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아트클래스 '상상을 담은 입체 아트카드 만들기'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광주신세계는 매주 한 주를 컬처위크(CULTURE WEEK)로 정해 갤러리, 아카데미, 1층 문화광장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문의 062-360-127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청소년 연극아카데미'

광주시립극단 수강생 모집

광주시립극단이 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연극아카데미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 내용은 메소드 연기훈련, 신체훈련, 발성 훈련 및 예술인 특강으로 구성되며 박운모(시립극단 예술감독), 김지훈(시립극단 상임연출), 김상오(시립극단 무대감독), 오영목(동신대 실용음악과 교수)씨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수강 기간은 4월 8일~6월 28일까지, 주 2회(2시간) 총 12주로 광주시립극단 연습실(빛고을 아트스페이스)에서 강의가 열린다. 20명을 모집하며, 신청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다. 수강료는 9만 원이다.

신청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www.gjart.net/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gjdrama@hanmail.net) 접수하면 된다.문의 062-511-275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꽃 중의 꽃 '매화'

은암미술관, '聞香'전

예로부터 꽃향기는 말한다고 하지 않고 듣는다고 했다. 매화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선인들은 삭풍이 몰아치는 인고의 계절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매화를 꽃 중의 꽃으로 여겼다.

향 또한 어느 꽃보다 은은하고 깊다. 매향을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로 여긴 것도 그 때문이다.

은암미술관이 다음달 25일까지 꽃 중의 꽃인 매화를 주제로 '문향(聞香)'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매화와 매향을 함께 만끽할 수 있다.

먹으로 매화향을 물씬 담은 운원 허탈



박태후 작 '자연속으로'

용, 시인 박태후 작가의 작품과 회화적으로 표현한 송필용, 서미라, 한희원, 황순철 작가의 작품이 은은하게 내뿜는 매화향이 관객들을 미술관으로 이끈다.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의 영상·



다음 작 '윤희매'

설치작품과 다음 작가의 밀랍으로 만든 윤희매(輪迴梅)가 전시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문의 062-231-5299.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강봉규 작가와 만남'

오늘 '나무와 사람' 전 부대행사로

광주시립미술관은 26일 오후 2시 미술관 전시실에서 '강봉규(사진) 작가와 만남' 행사를 개최한다.

'강봉규, 나무와 사람' 전의 부대행사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50여 년간 생생한 삶의 현장과 산하를 발로 뛰어 경험한 강봉규씨의 예술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 작품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 초보 사진가들이 알아야 할 작업 등 현장감 있는 이야기도 준비돼 있다.

또 작가가 직접 전시작품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봉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한국의 풍경과 사람을 찍은 '고향 시리즈'와 최근 10여 년 동안 다뤄온 '나무 시리즈'를 보여주고 있다. 두 주제는 사라져 가는 우리 것에 대한 애잔한 향수와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감동을 자아낸다. 문의 062-613-714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